

전세계,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이동중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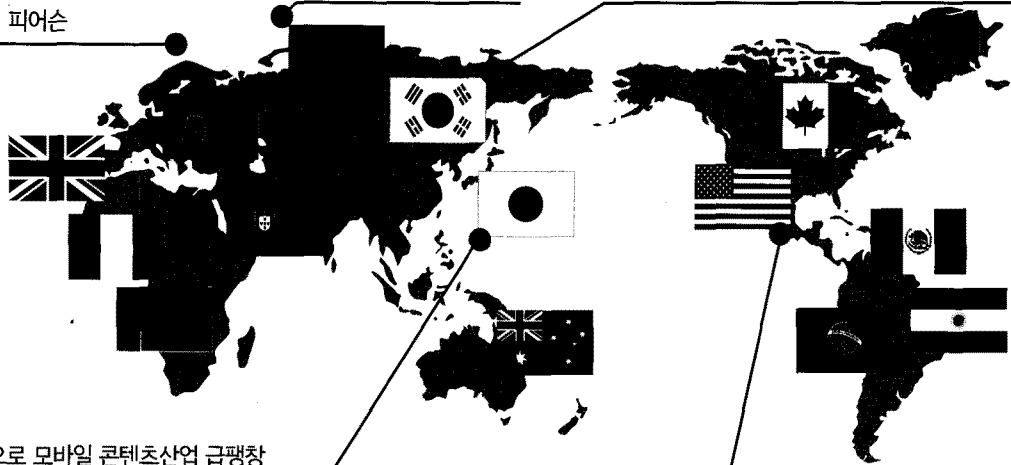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 출판강국 100년 역사  
독일 종이책, 전자책 동시 출간분  
펍킨, 랜덤하우스, 피어슨

**중국**

거대시장 기반의 강력한  
방정Apabi

**한국**

갤럭시s, 갤럭시탭, 스마트TV 단말기 강제  
교보문고 전년대비 176% 성장 대기업 진출 러시



**일본**

무선망 개방  
NTT무선망 개방으로 모바일 콘텐츠산업 급팽창  
CP10만개  
모바일 소설 1위 작가 가코스타츠 연500억원 수익

**애플**

콘텐츠+단말기 에코시스템  
아이튠즈 mp3시장 장악  
앱스토어 연매출 20억 달러  
아이폰, 아이패드 세계 패러다임 주도

**아마존**

킨들 800만대 판매  
아이패드 등장이후 All Device 전략수정

**구글**

구글e북스  
안드로이드 오픈마켓

작은 내수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 형성

# 전자책, 과연 시장성 있는가 전자책 시장성 / 재산성분석 및 성공모델 세미나

산업교육연구소(소장 김성익)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전자책 출판사업 시장성/재산성분석 및 성공모델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자책은 오는 2014년까지 연평균 27.2%의 성장에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자책 출판은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결합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출판 및 서적업계, 콘텐츠업계, 인터넷업계, 단말기업계, 이동통신업계, 게임업계 등 1인출판사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관련사업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자책에 대한 시장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듯 이번 세미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유료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상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관이 '전자책 출판사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정책'에 대해, 김원제 (주)유플러스연구소 연구소장이 '전자책 출판사업 시장성/재산성 및 사업성분석과 사업성공 사례'에 대해, 장기영 (사)한국전자출판협회 사무국장이 '전자책의 제작부터 출판까지의 전과정 프로세스와 전자출판 창업 성공모델'에 대해, 유운선 (주)북큐브네트웍스 콘텐츠사업본부 본부장이 '전자책 콘텐츠 기획/개발전략 및 콘텐츠업계의 수익모델을 위한 사업화방안'에 대해, 유종오 중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가 '전자책 출판사업/창업관련 세법 및 재무회계를 통한 효율적 경영관리방안'에 대해, 박문수 (주)웅진씽크빅 차장이 '웅진씽크빅 모바일 전자책 앱의 개발과 제작유통사례'에 대해, 복성배 (주)성도솔루윈 이사가 '모바일(스마트



폰/패드)용 전자책 기획 및 제작방법'에 대해, 김기태 세명대학교 교수가 '전자책 출판사업의 저작권 및 대응방안과 수익배분 방안이 포함된 전자책/콘텐츠 서비스표준계약서(안) 소개'에 대해 발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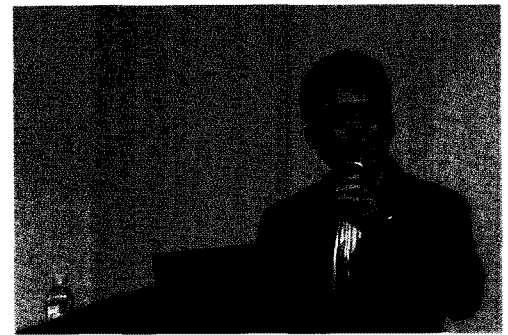
김원제 (주)유플러스연구소 연구소장은 "전자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스티븐킹의 성공사례로, 아직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전자책은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인내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으로는 전자책 단말기를 통한 전자책활성화가 아닌 스마트패드를 통한 전자책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자책을 얼마나 읽기 편리한가가 중요한 사업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영 한국전자출판협회 사무국장은 "반즈앤노블의 임원은 출판산업이 영화, 음악, 신문보다 훨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향후 2년 내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출판인협회(APP)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자책 산업은 9030만 달러로 전년대비 202%의 성장을 이뤘으며, 이에 반해 종이책은 전자책보다 작은 812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앞으로 전자책 산업은 종이책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는 "출판은 전통적으로 종이 그리고 인쇄기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인류의 정신유산을 구축하고 전파하며 전승하는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전반적인 환경에 비추어볼 때 출판산업 또한 고비용 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산업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본지에서는 조상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관이 발표한 '전자출판산업 육성정책'을 요약 정리한다.

### 전자출판산업 육성정책



〈조상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관〉

전자출판의 경우 업계에서도 보는 시각이 다르다. 한쪽에서는 기존 출판과 별개의 새로운 디지털콘텐츠 산업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 기존의 종이출판환경에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출판의 새로운 형태로 보는 두 가지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종이책을 포함한 전체 출판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서의 전자출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전자출판산업 육성정책

(단위: 억 원 출처 : 한국전자출판협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성장률 (06~13)
전자책	825	1,235	1,278	1,323	1,975	2,891	3,250	5,838	32.3%
전자사전	1,220	2,100	2,400	2,542	2597	2,613	2,518	2,581	11.3%
모바일북	208	265	279	247	533	929	1315	2,024	38.4%
논문 등	127	192	214	248	251	264	270	282	12.1%
오디오북	72	115	118	104	122	139	142	165	12.6%
기타	941	1203	1,262	1,322	1,430	1,492	1,528	1,678	8.6%
합계	3,393	5,110	5,551	5,786	6,908	8,328	9,023	12,568	20.6%

### 전자책 발간현황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05~09)
발간총수	36,732	77,417	53,303	142,705	230,271	58.23%



터에서 그동안은 음악, 영상물만을 추적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자책도 감시하고 있다. 이는 전자책의 DNA를 추출해 ICOP서버에 저장해놓으면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적해 일치되는 것이 있으면 해당 업체에 불법 복제된 전자책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 현재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 하지만 전자책DNA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출판사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불법복제물에 대한 처벌권한을 위임받아야 하지만 이 부분이 미흡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법제도의 개선

현행 출판권 설정 근거는 저작권법 제 57조에 의거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즉, 현행법상 전자출판에는 출판권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편법으로 저자의 복제/공중송신권에 근거한 이용허락 계약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의견을 조율해 법제화를 할 계획이다. 단 저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같은 콘텐츠로 종이책과 전자책을 같은 업체에서 만들 수도 있고, 종이책은 A업체에 전자책은 B업체에서 출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책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전자책도 정가제 적용대상이다.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책에 관한 규정중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으면 적용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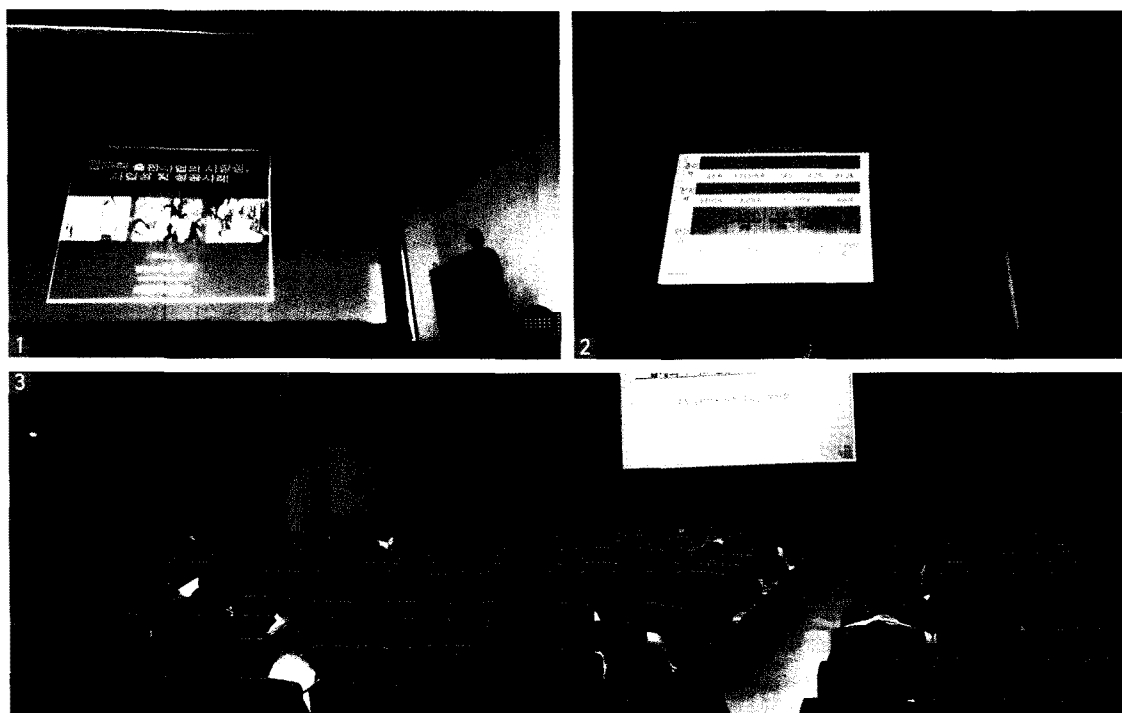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책도 기존의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ISBN을 받아야 하는 등 종이책과 같은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한다. 다만 도서정가제는 종이책과 관련된 내용이라 전자책과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종이책의 경우 발행 후 18개월이 지나면 도서정가제의 적용대상이 아닌데, 만약 전자책의 경우 종이책과 함께 만들지 않고 시간이 흐른 후 만들게 된다면, 같은 책이더라도 종이책은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이 아닌데, 전자책은 도서정가제의 적용대상에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최대한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둘 예정이다.

### 향후 추진과제

향후 전자출판물 표준화 포럼(ODPF)에서 지속적인 표준화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전자출판산업의 지원을 비중 있게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토대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더라도 국내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정리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1. 발표하는 김원제 연구소장 2. 장기영 사무국장 3. 유윤선 본부장